

「꿈의 레이저」 세계 첫 개발

美 MIT유학 안경원박사 3년 연구끝 개가



안경원박사

3년여의 연구 끝에 「마이크로 레이저」(단원자 레이저)라 불리는 새로운 레이저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마이크로 레이저는 한 개의 원자만을 이용해 레이저 발광을 만드는 기술로 기존의 레이저가 수억 개의 원자를 이용해 레이저 발광을 얻었던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까지의 레이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레이저가 개발돼 화학의 관문 열리게 됐다.
미 캘리포니아주 「리버럴」에 있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MIT)의 안경원박사(33)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융합교수(레이저물리학)는 「안파사가 개발한 마이크로 레이저 기술은 지금까지의 레이저 기술과는 단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파사는 서울 동대문구 화곡동에 있는 반도체 연구개발 회사로 86년 KAIST에서 유학한 안경원박사가 창업했다.